

강화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개발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접경지역개발 국무총리 표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8일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접경지역 개발) 분야 'DMZ 평화의 길' 구성에 기여한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 인근을 활용한 도보길 조성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했다.

시상식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화군의 많은 노력과 예산 투자로 비무장지대 도보여행길 구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간 체류형 도보여행길(524km) 정비사업과 거점센터 설치 및 안내표지 등 정비 후 오는 10월 DMZ 평화의 길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강화군에서는 최북단 지역인 갑곶순교성지, 전쟁박물관,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 연미정, 천도공원 및 평화전망대를 잇는 도보여행길 조성(16.91km)을 완료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DMZ 평화의 길 구성을 통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자연을 담은 강화섬의 맛!

강화도농특산물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강화삼알
SEM-SAM

강화도종순무

강화속노랑고구마

강화도새우젓
SAE BOO-JEOT

최고의 셰프는 강화입니다!

강화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2024년 주요업무보고회



2024년 주요업무보고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비한 신규 사업 발굴, 국·시비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보고회는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장,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선8기 1년 동안의 업무성과와 내년도 부서별 현안·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방향과 384개 실천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내년도 주요 신규·핵심사업으로는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신축 △하점면·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길상공원 조성 △동문안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외포항 관광명소 조

성 △강화천문과과학관 운영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 △나룻부리항 해안둘레길 조성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축·어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을 위해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미래 치유농업센터 운영 △스마트 로컬팜 조성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 △장곶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CCTV통합 관제센터 신축 △스마트빌리지 조성 △남부 산불대응센터 건립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의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민선 8기 2년 차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1**

청렴한 공직문화로 만드는 풍요로운 강화군! 강화군, 2023년 하반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2일 강화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700여 강화군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수로서 만들고 싶은 강화군의 공직문화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비롯한 금품, 행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 행정, 갑질과 이행 충돌이 없는 강화군이라고 제시하며, 모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 가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가 우리 강화군에 정착이 된다면 세상에 못

이루어 낼 것은 없으며, 강화군민으로부터 신뢰 얻는 청렴한 강화군을 실현하여 살고 싶은 고장 강화군, 7만여 군민 모두가 잘살고 풍요로운 강화군을 꼭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1**

- 최벽하 기자



공직자 청렴교육

야간조업구역 15ha 확장, 연 20억원 소득향상 기대 강화군, 주문도 어장확장에 이어 맨손어업 야간조업도 해결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었다. 하지만, 주문도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문도 어업인들과 경인북부수협에서는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도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들은 정식으로 강화군을 거쳐 해병대 제2사단에 야간조업을 허용하도록 군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국가 안보상 및 경계 작전 지역 이유로 부동의 된 바 있다.

경인북부수협장(조합장 이만식)은 주문도 맨손어업 어민을 대표해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강화군의 시책에 발맞춰 어민들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일 입법 예고된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화군이 그간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 기관에 수년간 건의하고 40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통해 60년 만에 조업 한계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강화군 교동면 남쪽 교동어장 6km², 하점면 창후항 인근 해역의 창후어장 2.2km²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km²정도가 확장되는 어업규제 완화의 대표적 주요성과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1]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주문도(서도면) 갯벌에 맨손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야간조업이 최종 군사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제2사단,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 등이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3개 구역을 신규로 설정하여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ha가 확장되어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어획량 증가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그동안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하게 돼 있고, 주간에만 조업하도록 허용되어 있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3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3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원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강화군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공시 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열람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일선 현장 근로자 위문, 노고를 격려



강화군의회 현장근로자 위문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 21일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한 산불 대응센터 및 강화읍 용정리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쌀국수,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화군 산불대응센터에는 현재 산림병해충 예찰·지상방제단 및 산사태 예방단 근로자들이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병해충 방제에 애쓰

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장에는 17명의 직원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강화군의회의 박승한 의장은 강화 군민의 안전과 강화군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여러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강화군, '부서별 개발 컨설팅' 성과중심 군정 도약



성과지표 컨설팅 모습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민선 8기 군정비전과 군정성과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부서별 업무평가 관련 성과지표 개발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컨설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말까지 지속

적인 부서별 지표 코칭을 통해 강화군의 공약사항, 현안사항, 주요업무 등을 분석하여 부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난 15일 군정 성과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측정 지표의 고도화를 위해 총 29개 부서 305개 지표에 대하여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

군은 2024년 도입을 목표로 금년도 초부터 추진한 국정 통합성과관리(BSC)시스템 구축 사업과 더불어 군정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컨설팅까지 연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도전적인 전략목표 수립 및 지표 설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기자



10월 11일까지, 소 21,059두, 염소 1,660두 대상 강화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소 659농가 42,943두, 염소 106농가 2,318두에 대해 긴급 추가 접종 실시로 구제역 차단에 철저를 기했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소 21,059두 ▲염소 1,660두로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 임신 7개월부터 출산이 임박한 가축은 접종 제외 대상이다.

군은 일제접종 후 1달 이내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 80%, 염소 60%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실시하는 등 항체형성률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농가에서는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고, 농장내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점검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10월 11일까지 실시한다.

강화군은 올해 상반기 일제접종과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 강화군, 성인용 보행 보조기 지원 추가 접수



성인용보행보조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성인용 보행 보조기에 대한 추가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성인용 보행 보조기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조기 1대당 약 20만 원으로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은 일부 본인 부담을 통해 보조기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등급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은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해야 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 중 장기 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거

동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읍면을 통해 신청받아 성인용 보행 보조기를 지원해왔다.

지난 3월에 39대, 8월에 66대를 지원했으며, 잔여분 60대에 대해서는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그동안 신체활동이 불편함에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1]

강화군,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강화군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주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공모기간: 2023.9.25.(화) ~ 10.31.(화), 11월 중 결과 발표

참모지역: 강화군민(강화군 소재 작농·학교 구성원 포함)

공모분야: (정주여건 개선) 교육 환경, 문화 혜택, 보건의료 확충 등 (유입인구 정책) 귀농·귀촌 지원, 수요맞춤형 주거지원 (생활인구 확대) 주말농장, 농촌 관광, 장기 체류 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교육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 (기타) 기타 강화군의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시상내용: 금상: 160만원(1명), 은상: 100만원(1명), 동상: 50만원(각 2명) 장려상: 25만원(각 8명), 노력상: 10만원(각 10명)

응모방법: ▶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 군민참여 > 공모제안신청(강속)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강화읍 관치대로 394,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우 23031) ▶ 우편은 2023.10.3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문의처: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 ☎ 032-930-3313

강화군

강화군,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있는 직장 및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분야는 ▲정주 여건 개선 ▲유입 인구 정착 ▲생활 인구 확대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평가 기준은 효율성·창의성·실시 가능성·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

며, 수상자에게는 금상 15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25만 원, 노력상 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접수는 강화군 누리집(홈페이지) 강·특 게시판(접속경로: 군민 참여→군민 제안→공모제안 신청)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기획예산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많은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1]

- 최백하기자

유천호 강화군수,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



유천호 군수, 소비촉진캠페인 동참

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선물은 우리 농·축·수산물로'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 했다.

유 군수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가 줄어 많은 농가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업계에 보름달처럼 환한 빛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 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불별더위와 수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힘을 보태고,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강화군산림조합과 함께 KTX 용산역 특설매장에서 강화군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주민과 귀성객에게 고품질의 강화군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

강화군, 강화섬쌀 '적기 수확, 적온 건조' 당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품질 강화섬쌀 생산을 위해 적기 수확 및 적온 건조 등 수확 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 푸른색 쌀, 광택이 없는 쌀이 많아진다. 반면, 수확이 늦어지면 쌀에 금이 가고 찌라기가 많이 생기는 등 미질이 떨어져 밥맛이 저하된다.

벼 수확적기는 눈으로 보기에 벼알이 90% 이상 누렇게 익었을 때로 이삭이 나온 후 중생종은 50~55일, 중만생종은 55~60일에 수확해야 한다.

수확 당시의 수분함량은 보통 22~25% 정도로, 적정 수분까지 건조를 위해서 건조 방법과 시간 등을 잘 선택해서 서서히 말려야 한다. 물벼 건조작업 적정시간 한계는 수분함량이 20%~26%일 경우 8시간 이내, 26% 이상일 경우 4~5시간 이내에 건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벼는 용도에 따라 건조 온도를 달리해야 한다. 밥쌀용은 45~50℃ 이하로 건조해야 밥맛이 좋고, 종자용은 40℃ 이하로 서서히 건조해야 발아율이 높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쌀은 미생물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품질과 밥맛이 뛰어나다”며, “이러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적기 수확 및 적온 건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많은 농가에서 발생한 깨씨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벧짚을 반드시 썰어 넣고 깊이갈이를 실시해 땅 심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적기 수확

- 조생종(출수 후 45-50일), 중생종(50-55일), 중만생종(55-60일)
- * 출수 후 적산온도 1,100~1,200℃

숙기법	중생종	중만생종
수확 적기	9.26.~10.6.	10.10.~10.20.

- 외관상 한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수분함량 22 ~ 25%) 누렇게 익었을 때
- 종자용은 수확적기보다 약간 빠르게 수확
- 수확기에 접어든 쓰러진 포장의 벼는 논바닥의 물을 빼서 수밭아 (벼 이삭에서 싹이 남)를 예방한 다음 서둘러 수확

■ 적온 건조

- 도정 및 수매용 : 45-50℃ *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 나빠짐
- 종자용 : 40℃ 이하

* 물벼는 수분 함량이 20% 이상일 경우 8시간 이내, 수분함량이 26% 이상인 경우는 4~5시간 이내 건조작업 실시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 930-4150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2023 강화군 일자리 한마당 개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 이하 '센터')는 내달 12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 강화군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간 1:1 현장 면접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한다. 이에 구직자에게는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민의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취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입사지원서 컨설팅, VR 모의면접 체험, 진로·직업 상담,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면접 메이크업, 지문적성 검사 및 해석, 면접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진단, 타로로 알아보는 직업·진로 등을 지원하며, 참가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화 또는 창업·일자리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윤정혁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의 현장 면접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및 안내 ▶ ☎ 032-934-3098 또는 홈페이지 www.ganghwajob.kr

풍요로운 강화에서, 내 일(my job) 찾기

2023년 강화군 일자리 한마당

2023. 10. 12. (목) 14:00~17:00
강화문예회관 1층 대공연장
(강화읍 고비고개로19번길12)

재용행사

- 기업·구직자간 1:1 현장면접
- 참여대상 : 구직을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 참여업체 : 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여방법

- 구 직 자 : 사전참여 신청(유선·센터방문)
행사 당일 현장 방문(신분증,이력서 지참)
- 구인업체 : 사전 참가신청(유선,팩스)

부대행사

- 지문적성검사
- 퍼스널컬러 진단
- 이력서 사진 촬영
- 면접메이크업
- 타로로 알아보는 직업·진로 등

참여문의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TEL 032-934-3098
FAX 032-934-3639

* 행사 당일 방문자에게는 무료 커피 제공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11월 30일까지 이동형 순회 전시 강화전쟁박물관, '6.25 전쟁과 헌신의 도구' 전시회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전쟁박물관에서 '6.25 전쟁과 헌신의 도구:70년 전 그날, 국군의 결을 지킨 무기들'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023년 전쟁·군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의 하나로 6.25 전쟁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 전시회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시된다.

총 2개의 이동형 전시대로 제작된 전시는 6.25 전쟁에서 국군이 사용한 개인화기 종류 및 기능,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M1 소총 ▲M2 카빈소총 ▲M1918A2 자동소총 ▲M1911A1

자동권총의 실제 크기 모형이 있어 직접 만져볼 수 있다.

또한 사진과 함께 전쟁에서 무기를 직접 사용한 이용제 이병(국군 제3사단 제22연대 소속) 뿐만 아니라 실제 참전 군인들의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조명하여 무기가 국군과 국민의 삶을 지킨 생존 수단이자 용기와 승리의 원천이었음을 보여준다.

군 관계자는 "이동형 순회 전시를 통하여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재조명하고 전쟁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2023 전쟁기념관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이동전시물 순회전

6.25 전쟁과 헌신의 도구

70년 전 그날,
국군의 결을 지킨 무기들

2023.
9. 2. ~ 11. 30.
강화전쟁박물관 1층 로비



전쟁기념관
www.war-memorial.or.kr
강화전쟁박물관
Ganghwa War Museum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화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6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사)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회장 장기천)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해 노인회 관계자 및 노인복지에 기여한

표창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노인의 날을 축하했다.

노인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식에서는 군수표창 14명 등 총 42명의 노인복지증진 기여자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장기천 노인회장의 기념사, 박용렬 인천시연합회장의 격려사 및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군은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나라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1997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이 정해진 이래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어르신들의 공로에 감사드립니다"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노인일자리 확대, 헬스케어경로당 설치, 단군콜센터 운영 및 노인돌봄체계 강화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강화군·강화군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강화군,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평가 '우수' 기관 선정

강화군과 강화군노인복지관이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평가'에서 각각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화군노인복지관은 전년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 일자리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추진, 우수 사업단 운영, 수행기관 종사자 운

영, 기관 간 협업 노력 등에 대해 전년 실적 기준으로 매해 우수기관 표창을 실시해 왔다.

강화군은 총 20개 사업단에 65세 이상 어르신 3,156명이 헬스케어 매니저·실버카페·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교육·아동시설 학습 보조·공공시설 업무지원·노노케어·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에 따라 월 27만 원~54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며, 어르신들에게는 사회활동을 통해 노후 건강을 유지하고 소득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내년에는 어르신 마을해설사 등 양질의 일자리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군과 수행기관, 어르신 모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열정이 크며, 이번 수상은 그 열정의 결과"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통해 추석명절 수산물 안심구매 강화 풍물시장,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국 2등 선정!



강화풍물시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 시장 선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9일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한 '2023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 시장 콘테스트'에서 강화 풍물시장이 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 시장 선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여 원산지 표시의 무자인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매년 우수 시장을 선정 하고 있다.

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판 및 5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고, 원산지 표시 우수 시장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시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풍물시장을 찾아주시는 군민과 관광객이 강화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추진했다. ▣

- 최벽하 기자

8년만에 지하철 1,400원(150원 ↑), 일반 버스 1,500원(250원 ↑) 인상 10월 7일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 8년만에 인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2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오른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간선형(파란색) 일반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1,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인천 대중교통 운송 적자는 2022년 기준 지하철 1,736억, 버스 2,648억 원까지 증가해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과 함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으로 신용카드(성인)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0월 7일 일제히 인상되며,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인상 없이 현행 유지된다.

일반 버스 요금은 신용카드(성인) 기준 간선형은 1,250원에서 1,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 타 시도 행은 1,300원에서 1,550원,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50원 인상된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350원, 광역급행버스(BRT)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또 인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일반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 870원에서 1,050원, 어린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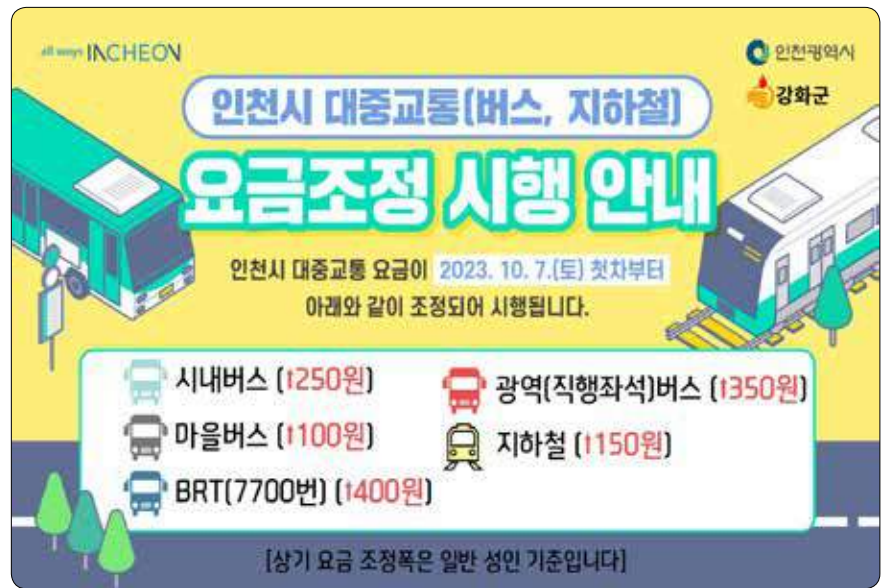
각각 인상된다.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운송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송수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백하 기자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추진 갑작 또는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재가돌봄·가사, 일상생활 등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돌봄 사각지대 및 갑작스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즉시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가 돌봄서비스,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돼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장기요양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없이도 30일 동안 72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이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1522-0365



기고

이경수

강화에서 보는 병자호란



충렬사

선원면과 선원 김상용

병자호란 때 선원 김상용 선생이 남문루에서 화약을 터트려 자결했습니다. 그의 호 '선원'은 강화군 선원면의 그 '선원'입니다. 어느 선원이 먼저일까요? 선원 김상용이 살던 마을이라서 그곳을 선원면으로 부르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김상용이 선원면에 살게 되면서 자신의 호로 그곳 지명을 따서 선원이라고 한 것일까요?

선원면이 먼저입니다. 고려 대몽항쟁기에 세운 대사찰 선원사(禪源寺)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선원사가 있던 지역을 한자 살짝 바꿔 선원(仙源)으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김상용이 선원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후 김상용은 자신이 머물던 마을 지명, 선원(仙源)을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강화읍 용흥궁공원에 선원선생순의비(仙源先生殉義碑) 두 기를 모신 비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 비각이 있는가? 어릴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의 강화산성 남문루에서 김상용 선생이 불붙인 화약이 폭발하면서 선생의 신발 한 짝이 날라와 지금의 비각 자리에 떨어졌다! 신발 떨어진 자리에 비를 세운 것이다! 신기하고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최근에 어느 선배님이 신발 한 짝이 떨어진 자리에 충렬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용 선생이 순절할 때 신발 한 짝은 선원면 충렬사 자리에, 또 한 짝은 강화읍 순의비각 자리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병자호란 당시 지금의 강화산성은 없었습니다. 강화산성은 병자호란 끝나고 70여 년 뒤인 1711년(숙종 37)에 쌓은 것입니다. 김상용 순절 당시에는 고려궁지에서 용흥궁공원 영역 정도의 작은 부성(府城)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남문이 지금 김상용 순의비각 자리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용 선생이 순절한 자리에 비각을 세운 것입니다.

얼마 전, 충렬사가 멀리 보이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충렬사를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묻더군요. 제가 충렬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왈, “여기도 절이 있구나.” 모처럼 친구놈과 돌이 낄낄 웃었습니다.

충렬사(忠烈祠)는 김상용 등 병자호란 때 순절한 인물과 청군에 맞

서다 죽임을 당한 인물을 모신 사우(祠宇, 사당)입니다. 1642년(인조 20)에 세웠는데 처음 이름은 현렬사(顯烈祠)였어요. 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1871년(고종 8) 3월, 흥선대원군이 전국 수많은 서원을 철폐하고 딱 47개만 남겼습니다. 그 47개 서원 명단 안에 강화 충렬사도 있습니다.

만약 충렬사가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아주 유명한 문화유산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찾는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강화에는 전국에서 드물게 선사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충렬사가 주목받지 못합니다. 충렬사를 절 이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적어도 강화 주민들에게만큼은 선원면 충렬사가 널리 알려지고 방문객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징과 삼충신

임진왜란을 치르고 약 30년이 지났을 때인 1627년(인조 5) 1월, 조선은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 쳐들어온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임금과 조정은 강화도로 피해 와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묘호란 끝나고 10년쯤 흐른 뒤인 1636년(인조 14), 후금의 홍타이지는 내몽골지역까지 차지하고 '몽골의 대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고무된 홍타이지는 4월에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淸)으로 바꾸고 황제가 됩니다. 그가 청 태종입니다. 같은 해 12월, 추운 겨울날에 청군이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입니다.

고려 때 몽골군은 주로 겨울에 쳐들어왔습니다. 정묘호란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도 겨울입니다. 겨울엔 강이 얼어서 말탄 채로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조선 국경을 넘은 청군은 불과 며칠 만에 서울 근처까지 왔습니다. 산성 전투를 의도적으로 피해 가며 신속하게 남쪽으로 내려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인조가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들어가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날랜 병사들을 뽑아 보내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임금보다 먼저 출발했던 원손과 세자빈, 봉림대군 그리고 김상용



김상용 선생 묘(경기 남양주)



황선신 사당

등 노약한 신하들은 무사히 강화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조는 강화로 오는 걸 포기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해가 바뀐, 정축년(1637) 1월 22일, 배를 확보한 청군은 홍이포를 쏘아대며 강화해협을 건너 갑곶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장악합니다. 1월 30일,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인조는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의 의식을 치릅니다.

정묘호란 때는 후금과 조선이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양국은 군신관계(君臣關係)를 맺습니다. 청나라의 신하국이 된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었습니다. 패배의 결과입니다.

청군이 강화도로 들이닥칠 때, 그들을 막아야 할 책임자는 검찰사 김경징과 강화유수 장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징과 장신은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났습니다. 대장들 달아났어도 목숨 바쳐 싸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황선신과 강홍업 등입니다. 구원일은 싸움을 피하는 유수 장신을 꾸짖고 자결했습니다.

갑곶돈대 마당에 삼충사적비(三忠事蹟碑, 1733)가 있습니다. 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호라. 이 갑곶나루터 진해루 아래는 곧 삼충신이 죽음을 보이고 돌아간 곳이다. 죽은 날은 실로 정축년(1637) 정월 22일이였다. 슬프도다. 삼충신은 강화부 사람이였다. 중군 황선신은 분개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우부천총 구원일은 칼을 쥐고 물로 뛰어들어 전사했으며, 좌부천총 강홍업은 중군과 함께 전사하였으니, 이른바 삼충이라 한다...”

삼충사적비 앞에 서면 아립니다. 이 귀한 비석에 언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쇠못 두 개를 깊게 박았습니다. 비석 부서질 위험 때문에 함부로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청군이 장악한 강화도는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청군은 닥치는대로 빼앗고 불지르고 겁탈하고 죽이고 또 잡아갔습니다. “다니는 길마다 눈 속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이 가득했으며, 죽은 아이는 서로 베고 누워 있고, 산 아이는 기어다니며 혹은 죽은 어미의 젖을 빨기도 하고, 혹은 어미를 부르고 할아버지를 부르며 구르다 다시 쓰러지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청군의 손길이 닿기 전에 자결한 이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김경징의 어머니와 아내도 목숨을 버렸습니다. 송해수라는 이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그때, 강화성에서 자결했습니다. “내가 비록 천인이기는 하나 견양(犬羊, 청군)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하고 목을 맺습니다. 천인? 그렇습니다. 송해수는 어느 집 노비였습니다. 노비 가운데 이렇게 목숨 버린 이들이 여럿입니다.

노비로 태어나 권리 없는 의무만 가득 지고 살아가던 이들의 순절의 의미, 곱씹어보게 됩니다. 김상용들에게 조선이 지켜야 할 나라였고 자존심이었던, 노비에게도 조선은 지켜야 할 우리나라였고 자존

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창구라는 이름을 가진 강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 전신 불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청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구창구의 아내 김씨는 멀리 피난 갈 수 없자 집안에 굴을 파고 남편을 옮겨 함께 숨었습니다. 그러나 발각되고 말았어요.

청군이 구창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 김씨는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빙니다. 청군은 남편을 살려두고 대신 김씨를 끌어갑니다. 순순히 잡혀가던 아내 김씨는 집이 한참 멀어지자, 청군을 욕하여 꾸짖더니 어느 다리에선가 투신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남편 목숨 구해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여인이 청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남자들이 잘못해서 침략받고, 여인들이 그 피해를 몇 곱으로 받는 고통이 역사에서 반복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읽고 듣지만, 저는 여전히 '위안부'라는 용어가 불편합니다. 국어사전은 '위안(慰安)'을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몇 년 후 돌아왔을 때 남편들은 그녀들을 야멸차게 버렸습니다. 임금 인조가, 그러지 말라고, 여인들이 정절을 버린 것이 아니니 받아들이라고 했으나 남편들은 왕명도 듣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녀(還鄉女)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환향녀'에서 '화냥x'이라는 뽀빠지 욕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 사료는 사관이 《인조실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남지들도 대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



삼충사적비



선원 김선생 순의비각

칼럼

1등 지상주의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탈북민들이 북한 사정을 털어놓는 TV프로그램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북한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개인 과외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마당을 중심으로 북한에 시장경제가 스며들면서 부(富)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과 기존 특권층들이 자녀를 김일성종합대학이나 평양의대 등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고액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과외비는 대개 달러로 흥정하는데 한달에 50달러 정도다.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북한돈으로 3000~4000원(1달러는 북한돈 8000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이다. 때문에 교수, 교사들은 학교 교육은 등한시하고 개인 교습에 매달린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남한에 강남 치맛바람이 있다면 북한엔 평양 치맛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1등 지상주의’는 남북한 공통인 것 같다.

어떠한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언론의 관심은 1등에게 집중된다. 대표적인 예가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다. 1위와 2위는 천양지차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사회적 관심도가 집중되지만, 금메달이 아니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순위집계에서도 금메달이 우선시된다.

또 대우도 크게 차이난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또 금메달 선수에게는 특별 격려금을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집중돼 있다. 때문에 우리 스포츠계는 ‘엘리트 체육’, ‘결과 지상주의’에 매몰돼가고 있다. “1등에만 집착하지 말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정도를 걸어라”고 주문하면 헛소리로 들릴 것이다.

비단 체육분야 뿐 아니라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1등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돼 있다.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간의 경쟁이 본격화됐고, 특히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경쟁의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고 경쟁대상도 늘어난, 이른바 무한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때문에 일의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과정이나 과정 속의 노력은 ‘결과’라는 성과물에 묻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간의 보편적 가치나 공동체 의식보다 경쟁의 결과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1등 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삭막한 세상으로 이어진다. 가정과 교육현장에서도 이기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저서는 안된다고 몰아세운다. 남을 이기는 아이를 만들겠다고 사교육에 재력을 쏟아붓는 부모는 많지만, (빈말이라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모는 드물다. 지는 법을 알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 패하는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 좌절하게 된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당시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을 때, 졸업도 하기 전에 미래의 밥그릇을 살피는 영악함에 놀랐다. 한 교수는 “고등학교에서 1등만 한 학생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자 사랑인지 엘리트 집단의 동질성 증명인지 헷갈렸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오랜만에 용도를 발휘했다. 애나 어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학창시절 1등만 했을 것으로 보이는 판검사들이 임용될 때 선서하는 ‘정의 구현’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물론 초심을 유지하는 판검사도 있겠지만, 어느새 ‘기득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해 한 언론인은 “개천에서 난 용은 개천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입신양명하기 전에 소외된 사람, 약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줄 알았던 사람이 돈이나 권력을 얻으면 타인과의 공감력이 떨어지고 도덕 수준도 약해진다는 정신의학적 분석도 있다.

그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갑질’을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수없이 많았던 점을 떠올리면 설득력이 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쾌락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돈이나 권력에 중독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 만능주의가 성공한 사람에게는 오만을 갖게 만들고, 실패한 사람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게 만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공한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해 패배자를 깔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과 연대감이 약화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능력에 따라 서열화하고, 1등만이 최고로 여겨지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인생은 일상적인 패배와 예외적인 승리로 이뤄진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니다. 1등

은 한 명뿐이다. 부모와 세상이 만들어낸 ‘1등 지상주의’에서 무구한 아이들을 이젠 구해내자.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다. 1등이 아니더라도 적응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널려 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정의로움은 1등을 못해 설움을 겪어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1등만 알아주고 기억하는 허접스런 세상은 이쯤에서 끝내자.

하지만 그 일등이라는 타이틀의 그늘에 가려진 숨겨진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일등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1



강화군, 추석맞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 이어져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 기탁

• 군민우선 공감행정 • 풍요로운 주민복지 • 생동하는 지역경제 •

사회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소외된 분들을 위한
각 단체들의 아낌없는 배려로 올해도 따뜻했습니다!



류씨온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



이달용 강화군주민자치협의회장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



강화모노레일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



강화를 사랑하는 드러머 클럽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



한국부인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



후계농업인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

강화군 새마을회, 직접 빚은 사랑의 송편 전달



새마을 송편 나눔행사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가 지난 22일 추석을 맞이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임순 군 부녀회장과 각 읍·면 새마을 남·여 회장들이 함께 직접 빚은 송편을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인술 강화군 새마을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이번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한가위를 맞아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앞장서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 새마을회는 매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연탄 나눔, 고추장 담그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화군노인복지관, 사랑가득 · 따뜻한 나눔 추석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



강화군노인복지관, 추석명절 음식 나누기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화군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사랑 가득 따뜻한 나눔 "추석 명절 음식 나누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 직원들은 손수 만든 불고기, 모듬전과 송편, 햅쌀 등 명절 음식을 마련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며 전달했다.

윤심 관장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정성 가득한 명절 음식과 함께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준비했으며, 이번 추석에도 정성 들여 직접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	답례품 상품
강화섬쌀	삼광, 고시히까리, 해들, 잡곡
속노랑고구마	속노랑고구마, 아이스속노랑군고구마
강화한우	불고기, 구이 세트 등
계란	동물복지 유정란
인삼	홍삼절편, 홍삼액, 홍삼스틱
사자발약쑥	약쑥진액, 약쑥환, 찜질팩
강화순무	순무김치, 순무동치미, 순무쌈뽕, 순무라페
유제품	요구르트
부각	김, 비트, 호박, 황태부각
차류	인삼차, 순무차, 쑥차
누룽지	콩나물누룽지
전통주	막걸리
장아찌	샐러리, 명이, 쪽파 등
제과	고구마빵, 샌드
화문석 및 소품	컵받침, 방석, 화문석 등
소창	손수건, 행주, 수건 등
관광서비스	화개정원 입장권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누구나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 기부방법**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고향사랑e음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군 재무과 (032-930-3297)


강화군, 전 군민 무료 독감, 연령대별 순차 예방접종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연령대별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4세~64세 군민으로 보건(지)소 또는 가까운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대상자별 접종 일정은 ▲9월 20일부터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생후6개월 이상~13세 미만) ▲10월 5일부터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13세 이하)와 임산부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16일부터 70~74세 어르신 ▲10월 19일부터 65세~69세 어르신 ▲14세~64세 군민은 10월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예방접종실(032-930-4029/4076)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접종대상자	주민등록 기준 강화군민	주민등록기준 관외자
생후 6개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2회 접종	23.9.20. ~ 24.4.30	23.9.20. ~ 24.4.30
임산부	1회 접종	23.10.5. ~ 24.4.30	23.10.5. ~ 24.4.30
	75세 이상 어르신	23.10.5. ~ 24.4.30	23.10.5. ~ 24.4.30
	70세~74세 어르신	23.10.11. ~ 24.4.30	23.10.16. ~ 24.4.30
65세 이상 어르신	70세~74세 어르신	23.10.11. ~ 24.4.30	23.10.16. ~ 24.4.30
	65세 이상 어르신	23.10.11. ~ 24.4.30	23.10.19. ~ 24.4.30
14세~64세 (강화군민)		23.10.11. ~ 23.12.29.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12.25.까지 접종)	미접종

※ 14세~64세: 접종 당일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접종이 가능함
 ○ 접종 장소: 보건(지)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 접종 요일: 군보건소(매주 화요일, 목요일 16시까지 접종) 보건지소(지소 별 접종요일이 다르니, 반드시 전화 후 내소)
 ○ 접종 준비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 (임신부의 경우) 임신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강화군보건소 032-930-4029/4076

독감, 치료보다 예방접종

일반적으로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과 하위 유형이 있으며, 인간뿐만 아니라 새나 돼지와 같은 동물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 독감의 원인

독감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독감의 주요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2. 전파 : 독감은 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또는 말할 때 호흡기 비말을 통해 퍼집니다. 이 비말은 근처에 있는 사람의 입이나 코에 닿거나 폐로 흡입될 수 있습니다.
3. 계절적 변동성 : 독감은 연중 특정 시기, 일반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더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종 계절성 질병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계절성의 정확한 이유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온도, 습도, 추운 계절에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유행병: 때때로 전염성이 높은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동물감염 전염: 독감의 일부 변종은 동물, 특히 새와 돼지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조류 독감(조류 인플루엔자)과 돼지 독감(돼지에서 유래)은 인수공통 독감 바이러스의 예입니다.

■ 독감의 증상

일반적인 독감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열: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는 것은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발열은 경증부터 고열까지 다양하며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기침: 지속되는 건조하거나 심한 기침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입니다. 이는 자극적일 수 있으며 다른 증상이 개선된 후에도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콧물 또는 코막힘: 독감에 걸리면 코막힘이나 콧물이 재채기와 콧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신체 통증 및 피로: 독감과 관련된 근육통 및 신체 통증은 극심한 피로와 함께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일상 활동

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두통: 극심한 두통이 종종 보고되며 이는 독감의 가장 귀찮은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6. 오한과 땀: 열이 나는 동안 신체가 온도를 조절하려고 할 때 떨리는 오한과 과도한 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감은 인후염, 숨가쁨, 구토와 설사 같은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독감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개인의 경우 독감은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및 기존 질환의 악화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감 증상은 일반 감기나 코로나19와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겹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독감 예방법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에게 권장됩니다. 이외에도 손씻기, 마스크 사용, 정기적인 주변 청소,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독감과 싸움에서 사전 예방적 조치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화 마니산 장엄사 20주년 개산대재

인천시민 한마음 산사음악회



출연 양지원



윤태화



최윤하



김윤아



국악그룹 이상

- 일시 | **2023. 10. 14(토) 오후 6시**
- 장소 | **화도면 흥왕리 장엄사**

주최 인천불교총연합회

주관 마니산 장엄사

후원  인천광역시

문의 | ☎ 032-937-9582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